

가정용 에너지 소비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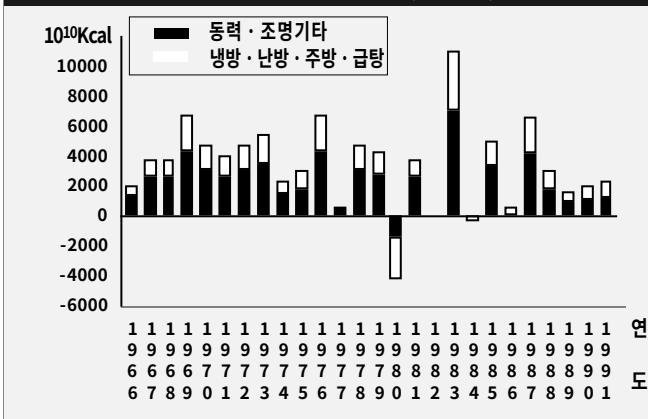
일본, 4.7% 증가 ... 전력·도시가스 증가 반해 등유·LPG 감소

일본의 에너지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세대당 에너지소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력과 도시가스 비중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 동력, 조명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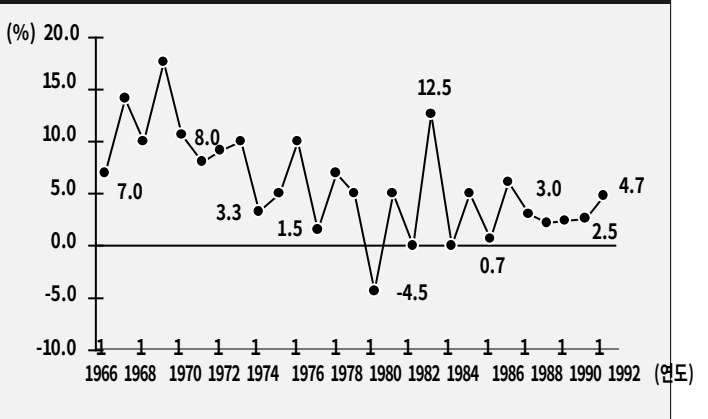
가정부분의 에너지소비는 오일쇼크를 전후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신장률 수준은 과거만큼 높지 않지만 2~3%의 안정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92년에는 4.7%의 증가를 보여 경기변동과는 상관없는 수요형태를 보였다.

종래의 가정부분 에너지 소비를 보면 에너지원별로는 최근 특히 전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등유나 LPG는 감소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냉방과 동력조명용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가정부분 에너지 소비의 증감 (용도별)



일본의 가정부분 에너지 소비추이(증감률)



실제로 최근 수년간 가정부분 에너지 수요는 동력조명 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수요증가는 에너지 가격과 내구재의 가격동향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은 83년 이후 전에너지원에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밀돌고 있으며 LPG를 제외하면 91년이 83년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에너지관련 내구재 가격동향도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하락, 가게에서 차지하는 내구재지출과 에너지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내구재 보급상황을 보면 칼라TV는 이미 한가구당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룸에어컨도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전력비중 동향을 살피기 위한 소득층별로 에너지 소비를 보면 과거에는 비교적 각 소득층별로 전력 비중이 비슷했으나 최근에는 고소득층일수록 전력비중이 커지는 반면, 등유와 LPG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에너지 소비도 신세대일수록 전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정의 에너지 소비는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자체의 동향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 식사, 교양, 오락, 주거환경의 선택 등의 행위에서 전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시간의 운용법과 지출동향을 보면 위생이나 교양, 오락 등에 할당하는 시간과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식사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필수적인 생활활동에 대한 시간이나 지출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위생면이나 교양, 오락 등 자유시간에 대해서는 지출과 시간할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